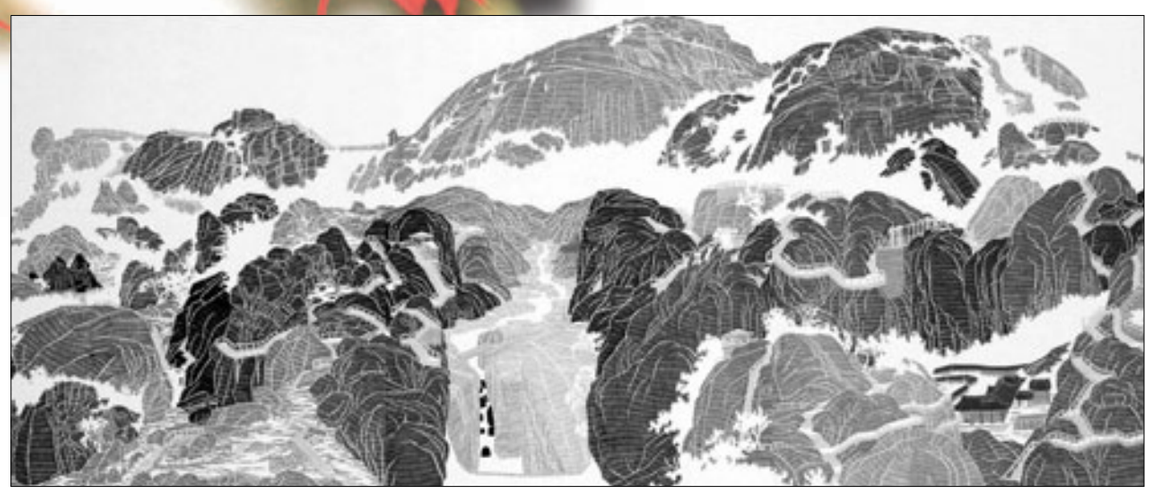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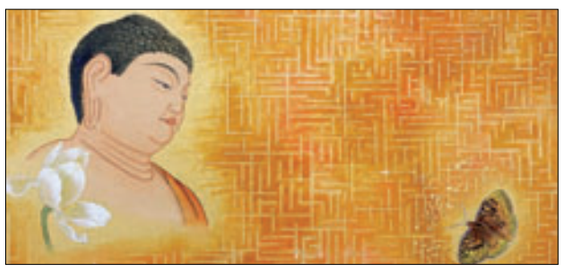
전국 가을 정취 물씬 전시회 소개

'가을엔 미술관을 가겠어요'



박병일 작가는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주거지이자 서인(西人)학문과 예술의 발상지였던 인왕산에 주목한다. 간결하고도 부드러운 선의 미학이 여실히 드러나는 수묵화 작품이다. '인왕산에서 노닐다' 150x345cm, 화선지에 수묵.

로터스갤러리, 민중미술 작가 '참 맑은 꽃' 展
필갤러리, 박병일 작가 '인왕산에서 노닐다' 展
갤러리다온, 불교미술 작가 최가영 개인전 '如法'
코모다호텔, 수안 스님 선서화전 '행복주머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 69cm x 39cm 비단에 천연재료 2014



이준석 작가는 만방에 핀 '들꽃'을 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을 떠올린다. 이준석 作 '푸르른 날'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가을 캐롤'이라고도 불리는 노래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작곡 김민기)의 한 구절이다.

열매와 이삭, 단풍잎도 가장 성숙되는 계절이라고 하는데 사람 마음은 왜 싱숭생숭한지, 추억의 노래를 꺼내 듣고 그리운 이에게 글 몇 자 적어 보내고 싶은 '가을'이다.

여기, 가을하면 떠오르는 불문율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전시회'다. 평소 잘 찾지 않던 전시회도 찬바람 불 때면 꼭 생각이 난다. 가을이 끝나기 전, 전시회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을 정취 물씬 나는 전시회 4선을 소개한다.

그림 속 소국에서 피어오르는 향기

가을하면 '꽃' 싱그러운 봄꽃과는 다른, 가을꽃은 따뜻하고도 완연한 매력이 있다. 급히 추워진 날씨 탓에 가을꽃을 미처 만나지 못했다면 광주 로터스갤러리로 가자. 그림 속 꽃들이 풍겨내는 가을꽃 향기가 저 멀리 걸어오는 겨울마저 잠시 멈추게 할 테니.

민중미술 1세대 작가 이준석의 '참 맑은 꽃' 전시가 11월 1~29일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열린다.

이중석 작가는 광주 지역에서 민중미술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대학 시절 교생실습 기간에 겪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영향이 컸다. 작가는 그 후 30여 년 동안 안온한 삶을 뒤로하고, 거리와 광장에 자신의 신념을 담은 작품들을 걸어두고 있다.

이 때문에 '꽃'도 작가에게는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작가는 만방에 핀 '들꽃'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을 떠올린다. 그래서 이 작가는 아름답고 화려한 꽃 보단 길섶에서 흔히 보고 지나치는 들꽃 무리에 주목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푸르른 날'(2014) '늘 저만큼 거리에서'(2017) 등 작품을 선보인다.

조선 사대부처럼 인왕산에 취해볼까

필갤러리는 2017 신진작가 공모 첫 번째 전시로 박병일 작가의 '인왕산에서 노닐다' 展을 10월 30일~11월 11일 연다.

박병일 작가는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주거지이자 서인(西人)학문과 예술의 발상지였던 인왕산에 주목, 일대의 청풍계 · 청휘각 · 자하동 · 필운대 · 창의문 · 수성동을 비롯해 인왕산 둘레길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인왕산의 풍성을 재구성하거나 특정 장소에 대한 기억을 부각시키는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박병일 작가는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및 동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미로 같은 '인생길'서 부처를 좇다

한 치 앞 모르는 '인생길'을 비유하는 미로의 형상에 생의 기쁨과 고난을 담고, 궁극적으로는 부처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한다는 주제로 최가영 작가의 불교미술 개인전이 열린다.

불교미술 작가 최가영은 11월 7~17일 서울 강남 갤러리다온에서 '여법(如法)전'을 연다. 최 작가는 천연재료를 사용해 전통 불교회화 기법을 따라가면서도 현대적 변화를 꾀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로-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 '미로-걷다3' 등 작품들이 공개된다. (02)555-9429

〈화엄경〉 가르침이 선서화로 태어나다

수안 스님은 선서화집 〈행복주머니〉 출판을 기념하며 출판기념법회 및 선서화전을 11월 1~5일 부산 코모도호텔 희락정에서 개최한다.

선서화전은 책 〈행복주머니〉에 담긴 선화를 주제로 전시한다. 〈행복주머니〉는 경전〈화엄경〉의 가르침을 선의 안목으로 풀어낸 선서화집이다. 이 책은 통도사 사보 '등불과 생명나눔실천본부 소식지 인 '행복한 빈손'에 실렸던 작품들을 모은 것이다. 작품은 100여점이며 수록 작품 외 추가로 그린 새로운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전시 수익금은 통도사 요양원 자비원에 회향한다.

수안 스님은 석정 스님을 은사로 월하 스님을 계사로 수계를 받았다. 1979년 '이리역 폭발사고 이재민 돕기 선묵전'으로 대중에 알려졌으며, 현재 한국불교 선화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영축산 문수원에 주석 중이다. (051)244-0263 박아름 · 하성미 기자

세계적 힐링멘토가 안방으로 찾아온다!



BTN불교TV는 10월 20~25일 서울 및 제주에서 열린 '슈퍼 소울 릴레이'를 다큐멘터리로 제작, 11월부터 3개월간 방영한다.

BTN, '슈퍼 소울 릴레이' 등 신규 프로그램 편성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는 시청자와 청취자 중심의 가을 개편을 꾀한다. '힐링'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는 시청자 수요를 반영해 힐링멘토 강연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라디오도 청취자 편의를 반영해 편성 시간을 대폭 변경한 것.

먼저 BTN은 10월 20~25일 서울 및 제주에서 열린 '슈퍼 소울 릴레이'를 다큐멘터리로 제작, 11월부터 3개월간 방영한다. '슈퍼 소울 릴레이'는 오프라 윈프리의 '슈퍼 소울 선데이, 더 시크릿 쇼'를 통해 세계적 힐링멘토로 부상한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를 비롯해 혜민 스님, 야구선수 박찬호, 세바시 김창옥 교수가 참여한 행사다. BTN은 행사 전반을 다룬 다큐멘터리와 함께 마이클 버나드 백위스의 단독 인터뷰를 담았다. 자세한 방송 시간은 추후 공지.

아울러 BTN 불교라디오 '울림'은 론칭 1주년을 맞아 편성 시간을 조정한다.

인기 프로그램 '원영 스님의 해피타임'은 기존 5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 편성된다. 본방송은 월~금 오전 10시이며, 재방송은 오후 6시와 익일 새벽 3시다.

또한 10분간 방송되던 '마음의 선율 혜민입니다'도 청취자들의 요청에 따라 확대 편성, 매일 1시간 방송된다. 본방송은 매일 오전 6시, 재방송은 월~금 오후 3시와 자정이다. 이번 편성 조정은 11월 6일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울림' 앱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알 수 있다. BTN 불교라디오는 스마트폰에서 '울림' 앱을 내려받거나, BTN 공식 홈페이지에서 청취할 수 있다. (02)3270-3464~7 박아름 기자

천은사 괘불탱, 통도사성보博서 위용 뽐내

괘불탱 특별전 내년 4월 22일까지

보물 제1340호 천은사 괘불탱화가 통도사 개산대재를 겸해 일반에 공개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괘불탱 특별전으로 '천은사 괘불탱화'를 10월 28일부터 내년 4월 22일까지 헌괘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2016년부터 매년 개산대재 기념 괘불탱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구례 천은사는 통일신라 9세기에 '감로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됐다. 이후 18세기부터 지금의 '천은사'로 개명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천은사에는 주불전인 극락전을 비롯해 팔상전 · 웅진전 · 삼성전 등이 남아있으며, 〈금동불감〉(고려, 보물 제1546호) 〈아미타설법도〉(조선 1776년, 보물 제924호) 등 다수의 보물급 문화재가 소장돼 있다.

이번에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전시되는 괘불탱화는 1673년 제작, 세로 865cm 가로 540cm의 규모를 자랑한다. 삼베 바탕에 붉은색, 녹청색을 주조색으로 그렸다. 화면에는 주존이 일체의 권속 없이 단독으로 서 있으며, 여래는 거신형 광배를 갖추고 양 발을 벌린 채 붉은색 연꽃을 밟고 있는 당당하고도 위엄 있는 자태를 뽐낸다.

이 탱화는 별도의 화기란을 마련하지 않고 화면 테두리 밖 하단 중앙에 제작 시기, 봉안처, 발원 내용, 시주자 명단이 먹으로 기록된 것이 특징이다. 화기를 통해 천은사에서 1673년(강희 12년) 대영산교주 존상 1점을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왕실의 성소를 기원하고 국태민안, 전란 소멸 등을 발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아름 기자



천은사 괘불탱화, 1673년, 마본채색, 865×540cm, 보물 제1340호

현밀과 삼승의 모든 지혜를
포괄하고 있는 보석과 같은 가르침!

문수진실명경
역해



티베트불교에서 종파를 떠나 모든
수행자들이 수지 독송하는 경전!

네팔에 머물며 수행과 티베트 경론 번역에 힘쓰고 있는 중암 스님이 인도와 티베트 주석서들을 참조하여 방대한 설명과 각주를 달았다.

중암 선혜 역주/신국판 양장/752쪽/값 3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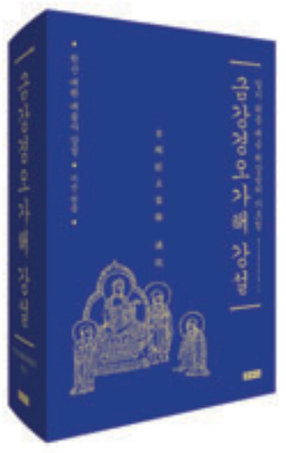
금강경 이해의 길잡이, 금강경 해설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금강경오가해』!

금강경오가해 강설

학림사 오등선원의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

-경의 요처마다 선적, 교학적 안목과 현대적
시선으로 해설을 덧붙여 바른 안목으로 이끌어준다.

『금강경오가해』는 규봉종밀, 육조혜능, 부대사, 야부도천, 예장종경 등 다섯 명안 조사의 금강경 주석을 모아 엮은 것이다. 여기에 해동의 함허득통 스님이 설의를 붙이고, 학산 대원 스님이 강설을 덧붙였다.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신국판 양장/912쪽/값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